

속속은 물질

통권 267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2 2021



“자연과 공존하며 삶을 지키는 1.5°C”

지난 11월 1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 22주년 기념 후원의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과 후원자분들이 참석 해주셔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월호 철저한 진상규명"



자연과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연합 창립 22주년 후원의 밤



끈질긴 투쟁 끝에 당진 신평면 신당리 송전철탄 공사 중지 이끌어



당진시 '제2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개최

- ▶ 발행 일 2021. 12. 10.
- ▶ 발행 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 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angjin.kfem.or.kr

- 3 이달의 시
| 첫눈 오는 날 / 곽재구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환경연합 창립 22주년 후원의 밤
- 6 지역환경초점2
| 끈질긴 투쟁 끝에 당진 신평면 신당리 송전철탄 공사 중지 이끌어
- 8 지역환경단신1
| 초락도 염해지 태양광... "조류보호 대책 수립해야"
- 9 지역환경단신2
| 당진시 '제2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개최
- 10 지역환경단신3
| 노동자·주민 한자리서 정의로운 전환 고민
- 11 지역환경단신4
|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토론회... '녹조+독소' 화두
- 12 전국환경초점1
|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전국행동
- 14 전국환경초점2
| "국내 화장품 절반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오늘 내가 바른 화장품에도?
- 16 석탄씨를 구해줘
| 제 15화 석탄극장, 엄마의 마음(기후위기, 신규석탄발전소, 온실가스)
- 18 전국환경초점3
| "석탄, 퇴출 아닌 감축" COP26 폐막❄️
- 19 11살림살이
- 20 11월 활동소식
- 22 12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첫눈 오는 날

곽재구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하늘의 별을
몇 섬이고 따올 수 있지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다닥다닥 두엇킨 이웃들의 슬픔 새로
순금빛 강물 하나 흐른다네

노래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새들이 꾸는 겨울꿈 같은 건
신비하지도 않아

노래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이 세상 모든 고통의 알몸들이
사과꽃 향기를 날린다네.

첫눈 오는 날
당산 전철역 계단 위에서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슴속에 촛불 하나씩 켜 들고
허공 속으로 지친 발걸음 옮기는 사람들

작가소개 - 곽재구

*1954년 광주에서 출생. *1982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사평역에서〉가 당선되어 등단.

*시집 『사평역에서』, 『전장포 아리랑』, 『서울 세노아』, 『참 맑은 물살』 등 * 산문집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장편동화 『아기 참새 씨꾸』 등. *1992년 신동엽 창작기금과 1996년 동서 문학상 수상.

*오월시 동인으로 활동. *현재 순천대학교의 문예창작과에서 시를 강의 중.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 22주년 후원의 밤

‘자연과 공존하며 삶을 지키는 1.5℃’ 주제로 개최

‘자연과 공존하며 삶을 지키는 1.5℃’를 주제로 진행된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 22주년 후원의 밤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1월 18일 메가패밀리뷔페에서 80여명의 회원과 후원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22주년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후원의 밤 행사는 당진환경연합 2021년 활동영상 상영, 양의원영 국회의원 강연, 참석자 소개, 공동의장단 인사, 시의원 축하 한마디, 연대의 한마디 순으로 진행됐다.

후원의 밤 행사 시작 강연에서 양의원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며 행정,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탄소중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함을 역설했다.

공동의장단 인사 후 후원의 밤에 참여한 당진 시의회 김기재, 윤명수, 조상연 의원의 축하 인사말이 이어졌다.

연대의 한마디에서는 당진시 한광현 경제환경국장, 김지환 기후에너지과장, 현대제철(주) 최일규 상무,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 김동환 처장,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구승남 이사장,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노찬 사무처장,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박기남 운영위원장 순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의지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식사와 함께 교류의 시간이 진행됐다. 또한 사무국이 직접 만든 천연비누 꾸러미를 후원의 밤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제공해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양의원영 국회의원이 강연하는 모습



후원의밤 행사에 참석한 후원자들과 회원



후원의밤에 참석한 후원자들의 축하 인사와 연대 발언하는 모습

끈질긴 투쟁 끝에 당진 신평면 신당리 송전철탐 공사 중지 이끌어

무기한 천막농성 22일만에 얻어낸 성과
철새 도래 기간인 내년 3월까지 일시 중단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신속하게 진행돼야”



지난달 29일 당진시청 소나무홀에서 진행된 북당진-신평정 345kV 철탐 관련 TF팀 회의에 김홍장 당진시장(가운데)이 직접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다.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신평면 신당리에 추진됐던 33번 송전철탐 건설 공사가 지난달 30일자로 중단됐다. 현장에 있던 공사 장비도 모두 철수해 적어도 철새 도래시기인 오는 3월까지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 김영란·유이계 대표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한전의 공사가 다시 재개되기 전, 최대한 빨리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숨 가쁘게 지나온 두 달

33번 철탐 공사 중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

하기까지 지난 두 달이 숨 가쁘게 지나왔다. 당진시 환경정책과가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과에서는 10월 8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개발 행위 허가를 내 '이중행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10월 29일 우강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으나, 같은 날 33번 철탐 예정지에서는 당진시의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철탐 공사가 시작돼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져갔다.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

이에 지난달 9일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김영란·유이계 대표가 33번 철탑 공사 중지와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며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천막농성 일주일만인 지난달 15일 당진시 환경정책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보완보고서에 따라 겨울철새가 도래하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한전에 전달했다.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진행됐고, 김영란·유이계 대표는 공사 중단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당진시에 요구했다.

이후 9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당진시 허가과가 한전에 “월동기간(2021년 12월 1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 공사 중지를 요청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행정명령’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요청’ 공문이었으며 한전의 공사는 계속됐다.

지난달 25일 저녁 당진시 허가과는 다시 한 번 공사 중지 ‘재요청’ 공문을 한전에 보냈다. 이에 다음날(26일) 오후 소들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민들은 실제로 공사가 중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진시 허가과장, 환경정책과장 등과 함께 33번 철탑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공사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공사 관계자의 말에 주민들은 또다시 분개했다. <본지 제1382호 ‘철새 도래시기에 철탑 건설 강행…주민들 공분’ 기사 참조>

당진시 행정에 분노 폭발

그렇게 주말이 지나는 동안 공사 중지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달 29일 천막에서 밤

을 지새운 김영란·유이계 대표는 김홍장 당진시장 출근 시간 무렵 시장실을 쫓아 올라갔다. 그동안 쌓아온 당진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쏟아졌고, 김 시장을 앞에 두고 김영란 대표와 관계 공무원 사이에 고성어 오갔다.

그날 오후 진행된 북당진-신당정 345kV 철탑 관련 TF팀 회의에 김홍장 시장과 이상인 당진시 정책특별보좌관(자치분권연구소장)이 참석해 김영란·유이계 대표 및 당진시 관계 공무원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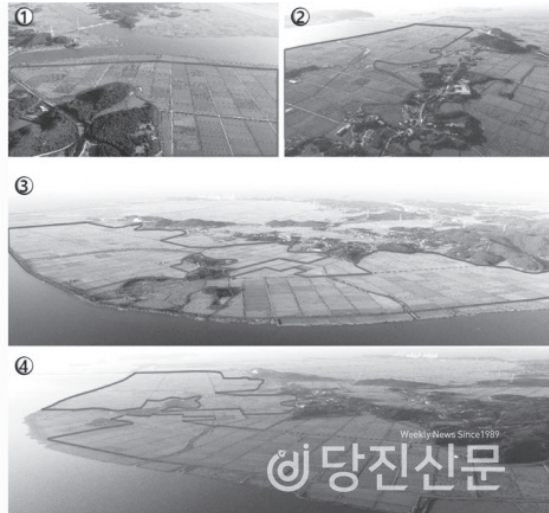
결국 그 다음날 모든 공사 장비가 현장에서 철수한 것을 주민들이 확인했다. 천막농성 22일만에 공사 중단을 이끌어낸 것이다.

김영란 대표는 “이제 3월이 지나 한전에서 공사를 재개하기 전, 하루 빨리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당진시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들섬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홍장 시장은 “공사 중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당진시와 주민들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최대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민들의 열망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당진시대]

초락도 염해지 태양광...“조류보호 대책 수립해야”



석문면 초락도리 일원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태양광 사업시행자 지에스당진솔라팜 주식회사 관계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당진 초락도리 염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간척 염해농지를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환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발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중략)

설명이 끝나고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이후 운영 과정에서 모듈이 미끄러질 때문에 조류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류 보호 대책도 수립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당진시에너지센터 이인수 센터장은 “보고서에

는 20년간 발전시설 이용 이후 토지 재생을 위한 대책에 대한 조사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면서 “철재 조사도 미흡해 보인다. 사업지에는 독수리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보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철재와 토양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회에서 모두 담아내지 못했지만, 보고서에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오늘 발표한 평가서 내용은 초안으로, 말씀해주신 부분은 조사해서 본안에 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지난 5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당진시청 환경정책과, 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공람이 가능하며, 지에스당진솔라팜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수렴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고 협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

[출처: 당진신문 일부 발췌]

당진시 '제2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 개최

당진·광양·포항시 및 제철소, 대기환경개선과 탄소중립 실현 의지 다져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25일 시청 당진홀에서 3개 철강도시(당진, 광양, 포항)의 대기환경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약속하고 친환경 철강도시 구현을 위한 '제2회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홍장 당진시장과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김경호 광양부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박종성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소장, 조영봉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 윤희희 (주)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추진관련 영상상영 △개회선언 및 축사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탄소중립관련 토크쇼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환경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도시 간 상생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포항에서 첫 '철강산업도시 상생 환경포럼'이 개최됐으며, 특히 이번 포럼에는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방향을 마련하고자 3개 제철소(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주)포스코 광양제철소, (주)포스코 포항제철소)도 함께 참여해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 역

활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준수를 위해 백신접종완료자만 사전접수 한 후 진행했으며 온라인(유튜브 '당진시청')으로 생중계됐다.

한편 3개 도시 및 제철소는 공동선언문 낭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 공동의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철강산업의 친환경 산업화'라는 공동 과제를 달성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지구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산업을 견인해 온 3대 철강산업도시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공유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출처: 당진신문]

노동자·주민 한자리서 정의로운 전환 고민

에너지 전환·고용대책 등 요구

석탄발전소 14기(삼천포 4기·고성하이 2기·하동 8기)가 있는 경남에서도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이 모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같이하자!' 캠페인이 24일 오후 창원시 한국노총 경남본부 앞에서 열렸다. 캠페인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합천 LNG복합화력반대대책위원회,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공동 주최했다. 그간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던 석탄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발전소 예정지 주민, 경남 안팎 기후활동가가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모두 11명이 발언대에 섰다. 황태호 발전HPS지부 수석부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책에는 노동자 보호가 빠져 있다"며 "원청사 직원은 폐쇄 시점에 일자리가 마련되지만, 수천 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다. (중략) 기후위기 시대 지역과 수도권의 불평등도 '정의로운 전환'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정진 총

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온실가스 위험도가 높은 도시는 충남 당진·보령·태안이고, 리스크가 적은 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용산으로 나타났다"며 "기후위기 시대마저도 수도권은 위험에서 벗어나 있고, 그 위험은 지역으로 전가돼 있다. 지역과 사회적 약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탈석탄국장은 "인천은 2030년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준비하고자 주민과 노동자가 함께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하는 '석탄발전 없는 영흥도 비전 포럼'을 창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석탄발전 퇴출에 따른 고용대책과 지역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설치 △위원회 핵심 주체로서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참여 보장 △지역민 일방적 희생이 아닌 참여와 이해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전환 계획 마련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에너지 부문 공공성 강화 대책 수립을 경남도에 촉구하며, 창원광장을 돌아 도청까지 행진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일부 발췌]

지난 11월 2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토론회... '녹조+독소' 화두

하구 복원 정책 추진 및 대선 국정과제 반영 요구 '한 목소리'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략)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도와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5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김종민, 이정문, 문진석, 이수진 국회의원과 박정현 부여군수, 노박래 서천군수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명지대 이창희 교수의 ‘금강하구 생태복원의 필요성 및 정책제언’을 내용으로 주제발표와 함께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진명호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장, 양금봉 충남도 의원,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 안순모 부산대 교수, 김영일 충남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중략)

충남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금강하구 생태복원이 대선 국정과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국정과제 채택과 관련 가칭 국가하구생태복원대선국정과

제채택협의체를 한시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닥이 나왔다. (중략)

토론회에 참석한 4대강(낙동강, 영산강, 금강, 한강) 관계자들이 별도의 자리를 갖고 ‘민·관협의체 구성’필요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그동안 금강이 농업용수가 수질이 나쁘다는 인식에서 녹조 독소문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략)”면서 “4대강이 힘을 모아서 영산강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 채택을 위해 함께 힘 모으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충남·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갖고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이 적극적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충남, 전북, 군산, 서천의 환경·농민·어민단체로 구성된 ‘금강하구 자연성 회복 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했다.

[출처 : 뉴스스토리 일부 발췌]

환경운동연합 '포스코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전국행동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이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구터미널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오늘(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규탄의 날>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오늘 17개 지역에서 진행된 전국행동은 강원도 삼척에 신규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를 건설 중인 포스코를 규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의 주범이며, 전 세계는 탈석탄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며, 포스코가 건설하고 있는 삼척 블루파워는 이러한 탄소중립 시대의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하루빨리 에너지전환지원법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포스코는 좌초자산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이우

리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삼척 블루파워가 수명 30년을 채워 가동하여 2054년에 폐쇄된다면 2050년 탄소중립과 배출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포스코는 한 해에 7,3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이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 이상을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후 악당'이다."라고 말하며, 포스코가 삼척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한다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경영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포스코는 지금 당장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후위기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환경운동연합 '삼성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전국행동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이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삼성생명 당진지점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오늘(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은 <삼성 규탄의 날> 전국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오늘 12개 지역에서 진행된 전국행동은 강원도 강릉에 신규 석탄발전소인 '강릉안인화력 1·2호기'를 건설 중인 삼성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삼성물산이 강릉에 2개의 석탄발전소를 지으면서 ESG, 기후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전 세계가 기후위기 앞에서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지 고민하고 있고, 한국 역시 수많은 석탄발전소들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는 시점에서 삼성의 추가 건설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삼성이 책임지고 강릉안인화력 건설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이민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삼성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아름다운 강릉에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30년동안 삼성이 석탄으로 더러운 돈을 버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어떤 기업이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ESG를 논할 수 있느냐"며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며 동시에 ESG경영을 선도한다는 삼성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민호 활동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떳떳한 대기업, ESG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환경운동연합은 12월 11일(토) 오후2시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석탄발전 그만치어' 시민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국내 화장품 절반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오늘내가바른 화장품에도?

화장품별 검출된 '과불화 화합물' 종류 및 농도

제품군	분석 제품 수	검출 제품 수	검출된 PFAS 종류	농도 (ng/g)
립 메이크업 (립스틱, 립밤, 립틴트)	3	3 (100%)	PFHxA	7.58
			PFHxA	5.58
			PFHxA	6.12
자외선 차단제 (선스틱, 선크림)	5	4 (80%)	PFHxA, PFHpA, PFPeA	51.48
			PFOA	4.28
			PFHxA, PFPeA, PFHpA	105.50
			PFPeA	6.80
메이크업 (베이스, 컨실러)	2	1 (50%)	PFHxA, PFOA, PFDA	59.46
			PFHpA, PFTeDA	
파우더/팩트	5	2 (40%)	PFHxA	4.02
			PFOA	4.72
파운데이션	5	0 (0%)	-	-
총 제품 수	20	10 (50%)		

한국환경연구원

국내에서 판매 중인 립 메이크업과 자외선차단제, 파우더 등의 화장품에서 코팅 프라이팬의 원료인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발암 위험물질로, 최근 미국에서는 사용 금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9일 국내 판매 중인 화장품 20개 제품 중 10개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과불화화합물은 4700여종의 다양한 화학물질로, 물이나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프라이팬이나 일회용컵의 방수코팅제, 가죽과 자동차의 표면처리제, 즉석식품 포장재 등에 쓰인다.

코팅 프라이팬의 원료 물질
환경운동연합 등 3개 단체
20개 제품 조사, 10개 검출
발달 장애 영향 물질도 나와

세 단체는 립 메이크업 제품 3종, 자외선차단제 5종, 파우더 및 팩트 5종, 메이크업베이스 2종에 과불화화합물이 얼마나 포함됐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립 제품은 3개 제품 모두에서, 자외선차단제는 5개 중 4개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됐다.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최대 105.50ng/g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돼 여러 제품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였다. 파우더와 팩트는 5개 제품 중 2개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고, 메이크업베이스도 2개 중 1개에서 검출됐다. 세 단체는 검출된 과불화화합물 중 유해하다고

알려진 종류의 과불화화합물(PFHxA)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도 따로 분석했다. 이 결과 10종 중 6종에서 PFHxA가 미량으로 검출됐다. 세 단체는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물질인 PFHxA는 체내 축적성 물질로 생식기관 및 발달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그 외 과불화옥탄산(PFOA) 등 다른 발암성 물질도 검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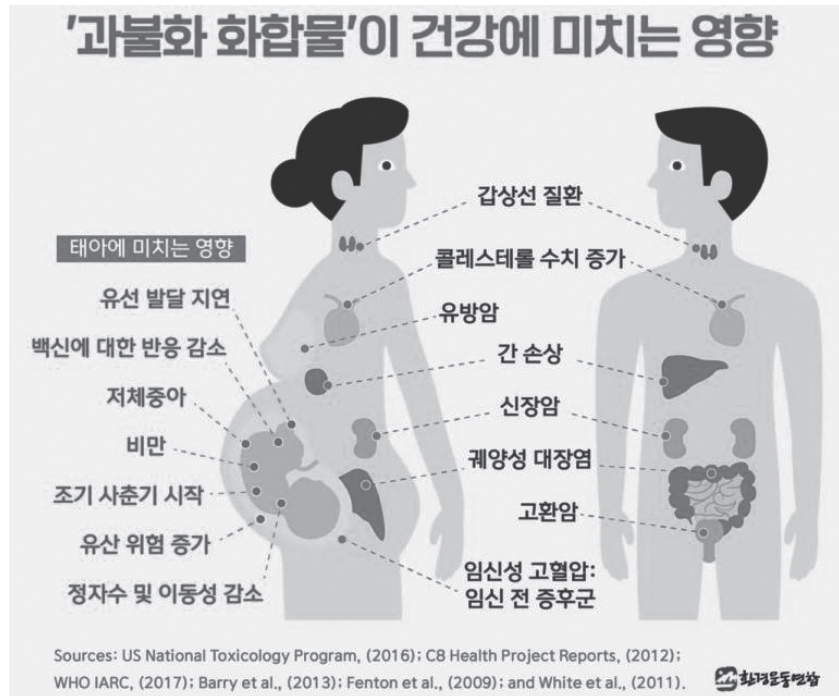
국내에서 과불화화합물을 화장품에 쓰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은 보호막 형성 기능이 있어 방수 기능의 메이크업 화장품이나 로션과 크림 등 기초 화장품에 쓰이고 있다.

발암 위험성 알려지면서
미·유럽에선 사용금지 추진
국내선 조사도 제대로 안 돼

하지만 세 단체들은 과불화화합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는 추세이기도 하다. 미국 환경청(EPA)은 과불화화합물을 ‘발암 가능성이 대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0년 이미 화장품에 과불화화합물 사용을 금지했고, 미 의회는 화장품에 과불화화합물을 전면 금지하

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22년 말까지 과불화화합물을 규제하는 화장품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직 국내에서는 화장품 내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는 없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분석팀장은 “화장품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의 농도는 미량일지라도 사용 과정에서 피부에 직접 흡수된다는 점, 하루에도 여러 개의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 환경운동연합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 내 과불화화합물 전수조사와 사용 금지 기준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출처 : 경향신문], [그림출처 : 환경운동연합]

과불화화합물이란?
 탄화수소 가운데 수소가 불소로 치환돼 불소가 많아진 화합물. 물이나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프라이팬이나 일회용컵의 방수코팅제, 가죽과 자동차의 표면처리제, 즉석식품 포장재 등에 쓰인다.

석탄씨를
구해줘

제 15화 석탄극장, 엄마의 마음 (15화) (기후위기, 신규석탄발전소, 온실가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출처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석탄씨를
구해줘

제 15화 석탄극장, 엄마의 마음 (15화) (기후위기, 신규석탄발전소, 온실가스)



석탄발전 퇴출하자

김석탄이 알려주마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어. 배출 흡수 총
+1 -1 0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순배출 제로로 만들고
2030년에도 지구 온도가 1.5도 넘게 상승하지
않을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결의한 거지.

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중단없이 가동되면 2030년은 커녕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는
계속 온실가스 뽀뽀이겠지!

프로필 링크 서명해 주세요

미래를 걱정하고 있어요

환경운동연합

김석탄이 알려주마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어.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순배출 제로로 만들고 2030년에도 지구 온도가 1.5도 넘게 상승하지 않을 만큼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결의한 거지.

하지만 지금 짓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중단없이 가동되면 2030년은커녕 2050년 까지도 석탄발전소는 계속 온실가스 뽀뽀이겠지!

“석탄 퇴출 아닌 감축” COP26 폐막..

의장은 사과하고, 기후단체는 장례식



11월 5일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기후파업 행진

2030년까지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며 석탄발전을 퇴출하고자 했던 주최국 등의 목표와 달리 국제사회가 석탄의 “단계적 감축(phase down)”에 합의하는 수준에서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폐회했다. 지난주 합의문 초안에 담겼던 석탄의 “단계적 퇴출(phase out)”이 막판 인도 등의 반발로 사라지고 크게 후퇴한 결과다. 알록 사마 COP26 의장은 부실한 성과에 사과했고, 기후환경단체는 ‘COP 장례식’을 열었다. 영국 글래스고의 주말은 기대에 못 미친 성과로 식었고, 분노로 뜨거웠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197개국 정부대표단(120여개국 정상 포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주 동안 개최된 COP26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조약’을 채택했다. 공식폐회일인 12일을 훌쩍 넘긴 이튿날 오후 8시(현지)께 최종협

상을 마무리했을 만큼 갈등과 조율을 되풀이했으나 결국 많은 과제가 다음 총회로 넘겨지게 됐다. 2015년 파리협정을 도출한 COP21 이상으로 시점상 중요하다고 평가됐던 COP26의 최종합의는 “10년 동안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도라 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로 COP 최초로 석탄과 화석연료를 명시했으나, 합의문 초안보다 못한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 3위 국가인 인도 등이 특히 반발하며 구속력이 없는 합의로서도 각국의 이해계산에 막힌 형국이다.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009년 COP15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금 마련안도 재차 미뤄지게 됐다.

그나마 2030년까지 삼림파괴를 중단하고, 2020년 대비 메탄배출량을 30% 감축하기로 한 105개국 이상의 합의 도출이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유엔은 “모든 국가는 2030년 배출목표를 2022년까지 재검토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연약한 행성은 실타래에 걸려있다. 우리는 여전히 기후재앙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면서도 “승인된 본문은 오늘날 세계의 이익, 조건, 모순, 그리고 정치적 의지의 상태를 반영한다. 불행하게도 집단적인 정치적 의지는 모순을 극복하기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주 동안 행사장 안팎에서 또 한 축의 여론형성을 이끌어온 미래세대의 비판은 더 격렬해졌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부 발췌]

2021년 11월 결산보고서 (사업기간 : 2021년 11월 1일 ~ 11월 30일)

수입액

[항명]	[목명]	수입집계	비고
이월금	10월 이월금	2,662,316	전월이월금
회원회비	개인회비	6,245,000	CMS, 자동이체, 지로, 특별회비
	[항집계]	6,245,000	
후원금	일반후원	685,320	개인 후원금
	재정사업	6,500,000	후원금
	[항집계]	7,185,320	
사업수입	회원사업	0	회원사업
	공모사업	0	공모사업
	기타사업	0	기타사업 수입
	[항집계]	0	
기타수입	기타수입	7,806,766	장기발전기금 해소 잔액 전입
	[항집계]	7,806,766	
월수입 총액	계	21,237,086	
수입 총액	계	23,899,402	전월이월금 포함

지출액

[항명]	[목명]	지출집계	비고
경상비	제세공과금	471,580	자동차보험료, 취득세, 전화료, 전기료, 신문대금,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221,900	관리비, 집기구입, 차량수리비, 실내등유, 커피구입 등
	자산취득비	0	비품, 자산구입
	복지후생비	177,000	업무추진비, 식대 등
	[항집계]	870,480	
인건비	급여	5,430,000	상근자 2인, 사무국장 10월 급여 미지급분 지급
	상여	0	
	퇴직적립금	360,840	
	사회보험료	450,470	
	[항집계]	6,241,310	
사업비	일반,공모사업	1,108,900	공모사업, 석탄화력, 송전탑, 등 현안사업 준비
	조직, 회원사업	6,025,120	총회, 소식지 인쇄 및 발송, 운영위 및 편집위원회, 함길구독 외
	정책, 조사사업	0	교육 및 정책사업비
	연대사업비	460,900	중앙 분담금, 연대사업, 충남환경연합 분담금 등
	기획재정사업	575,890	후원의밤
	[항집계]	8,170,810	
기금조성비	장기발전기금	0	장기발전기금
	[항집계]	0	
지출총액	계	15,282,600	

2021년 11월 잔액 8,616,802



충남도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요구 기자회견

지난 11월 4일 충청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탄중위해체요구 시민사회 일동 주최로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해체 및 재구성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창립 22주년 기념 후원의밤

11월 18일 '자연과 공존하며 삶을 지키는 1.5°C'라는 주제로 당진메가뷔페에서 약80여명의 회원과 후원자들이 함께 후원의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스코 삼척 석탄 그만지어 1인 시위

9월 17일 수원 군공항 유치 추진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진시장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경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국 공동 캠페인

11월 24일 경남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전국 공동 캠페인을 창원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함께 연대하였습니다.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

11월 29일 사무실에서 12월호 늘푸른물결 소식지 편집회의를 열었습니다.



삼성 강릉 석탄 그만 지어 1인 시위

11월 30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 삼성생명 당진지점 앞에서 '삼성 강릉 석탄 그만 지어' 1인 시위를 전국 공동 행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01 일반사업

- ❖ 12/01(수) 10:00 충남도 탄소중립위 관련 회의- 충남지속협
- ❖ 14:00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도민기획단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4:00 당진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회의 - 당진시청
- ❖ 12/02(목) 14:00 환경연합 회계 교육 - 서울 프란치스코회관
- ❖ 12/03(금) 14:00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회의 - 홍천군 농업인회관
- ❖ 12/07(화) 11:00 석탄발전 지역 주민인식조사 발표 기자회견 - 충남도청
- 16:00 12월 운영위원회 회의 - 온라인
- 12/08(수) 10:00 충남도 탄소중립위 관련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2/09(목) 11:00 당진환경교육센터 회의 - 당진지속협
- 13:30 전국 사업장폐기물 대응 대책위 발족식 - 온라인
- 17:0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 서산태안환경연합
- ❖ 12/10(금) 10:00 당진 탄소중립 이행체계 토론회 - 당진시청
- 16:00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2/11(토) 14:00 '석탄발전 그만 지어' 시민행동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 ❖ 12/13(월) 14:00 농어촌지역 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 - 서울 위드스페이스
- 19:00 정의로운 전환 경남 2차 세미나 - 온라인
- ❖ 12/15(수) 10:00 충남도 에너지위원회 회의 - 충남도청
- 14:00 충남 정의로운전환 포럼 - 미정
- 15: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워크숍 - 아산 외암마을
- ❖ 12/16(목) 16:00 당진화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회의 - 당진시청
- ❖ 12/17(금) 14:00 충남 기후변화 적응대책 도민기획단 회의 - 충남지속협
- ❖ 12/20(월) 10:00 충남도 탄소중립위 출범식 - 덕산 스피라스리움
- ❖ 12/21(화) 14:30 당진교육대토론회 - 설악웨딩타운
- 19:00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회의 - 온라인
- ❖ 12/22(수) 15:00 금강유역환경포럼 - 유성 호텔인터시티
- ❖ 12/23(목) 12:00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간담회 - 사무실
- ❖ 12/28(화) 17:00 공동의장단 회의 - 사무실

02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주부환경지킴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2/28(화) 11시30분

03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새내기 회원**

서영순(신평면), 전경배(읍내동), 이철재(고대면)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삼욱 강은구 강은식 고낙현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광성심 광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김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광호 김권기 김기권 김기동 김길자 김길찬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근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철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경 김민호 김백선 김법석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승택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숙 김정순 김정아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진호 김철환 김필배 김하정 김현기 김현립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장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경자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맹정재 맹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규섭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례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영환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중대 박중연 박중화 박창순 박태식 박혜규 박현순 박호완 박 훈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방차욱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필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신 오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종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형식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양웅 신진호 신철석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신현환 심주현 심중섭 안길준 안동일 안동택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자호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양정만 엄기태 오동원 오윤정 오의환 오일영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원종경 유미화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유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덕표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봉기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성남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인숙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화 이재훈 이정선 이정욱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중호 이중영 이창규 이충휘 이해선 이해운 이해은 이현남 이현숙 이호경 이호선 이홍숙 인남교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옥출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종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지섭 정찬관 정치웅 조강호 조대연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조현수 주영권 주은자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채종국 천선희 천혜경 최강부 최기승 최대실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복 최연이 최오상 최완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웅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문기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허인욱 현 민 호상기 호용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홍명욱 홍성호 홍심선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귀염동이가따어린이집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당진천주교회 별나라어린이집 상록인쇄사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율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2021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당진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덕분에 2021년에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발급 방법(종이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2022년 1월 중순부터 확인 가능)
2. 메일, 팩스나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회원님은 041-355-7661로 전화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농협 461-01-144805 당진환경운동연합

후원하신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연말정산)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